“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 마태복음 6장 33절 >

- 오늘은 성령강림주일 후 첫 주일로 삼위일체주일입니다.
- 가정의 달 네 번째 주일로 젊은이 주일로 지킵니다. 늘푸른사랑방과 젊은이사랑방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성년이 되는 이들을 축하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 사랑방 탁구대회 결선이 오후 2시부터 교육관에서 시작합니다.
- 멋쟁이학교 4학년 해외문화탐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이어진 전도사, 이어람 집사(생일), 이어직 집사

강단을 꽃으로 : 양기모 · 이명호 집사 가정 (결혼기념일)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1 - 21 호
2024년 5월 26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랑방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합체는 로망입니다

우리 집 거실에는, 조금 이상할 수도 있지만, 로봇 장난감 한 대가 TV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바자회 때에 입양되어 들어온, 이름도 모르는 그 로봇은 각각이 특색있는 형태와 색깔의 팔다리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그 완구가 바로 합체 로봇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로봇, 그것도 합체 로봇. 그걸 싫어할 부모님은 있어도, 싫어할 남자아이는 아마 없겠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상을 쫓는 낭만이고, 멋진 로망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합체 로봇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화와 애니메이션에서 흔합니다. 아마 TV를 보고 자랐던 대부분의 세대는 이름이라도 기억에 남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마징가Z, 그랑죠, 트랜스포머, 다간, 선가드, K-캅스, 골드런, 라이징오, 가오가이거, 구슬동자, 건담, 그렌라간, 또봇 시리즈, 헬로 카봇 등등 이 장르는 세대를 가리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그것은 인기, 즉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그 영역을 졸업한 어른 처지에서는 조금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중 많은 작품은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로봇과 함께 힘을 합쳐 적과 싸운다는 단순한 이야기 구조가 반복되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품은 달라지더라도, 때론 서로 싸우고 콤플렉스를 느끼고 겁을 내는 약함을 내보이는 아이들이 그 안에서 나타내는 성장과 성숙의 드라마는 시대를 뛰어넘는 울림이 있습니다.

그 울림은 우리가 축구나 배구, 농구 같은 팀 스포츠 안에서 잘 이루어진 협동에서 느낄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형태는 다르더라도 합체란, 서로 다른 것들이 한 몸이 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농구 경기 중에 팀원들의 패스 합이 딱딱 맞아떨어져서 눈이 휘둥그레질 골을 넣는다면, 그 쾌감은 굉장할 것입니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팀원이 한 몸이 되어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협동은 그만한 감동을 선사해줍니다. 그리고 그런 한 몸과도 같은 협력에 큰 감동이 있는 것은, 그것을 이루기가 대단히 힘난한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각각이 다른 인격체가 어느 한 기준점에 맞추어 뭉치는 것, 팀워크는 지역과 문화를 초월하여 그 중요성과 어려움을 동시에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회 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살다 보면 오순도순 정답게 살기는커녕, 작은 무언가를 타인과 함께 하기조차 쉽지 않다는 것을 어릴 적부터 깨닫게 됩니다. 특히나 젊은 층에선 흔히 주어지는 '조별 과제'에 대한 악명이 대단히 높습니다. 미성숙한 팀원이 역할을 쉽게 내버리고 그 뒤처리는 다른 팀원들이 고스란히 지거나, 협력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력의 결과가 오히려 개별적인 활동보다 못하게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기 때문입니다. 경험해본 사람은 알다시피, 팀워크를 발휘하는 과정은, 참여자 모두의 인격이 시험대에 오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나 어렵고 힘든 일인 것을 알기에, 난관을 극복했을 때의 기쁨과 즐거움은 자연스럽게 극대화됩니다.

사랑방공동체에서는 방모임, 공동체 훈련, 탁구대회, 식사 준비, 설거지, 청소, 예배 준비 등 믿음 안에서 한 몸으로 합체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가집니다. 이 모든 것은 잦은 실수로 주변과 갈등이 있더라도, 결핍된 덕목과 극복하지 못한 트라우마로 상처를 주고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상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로망의 발걸음입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더라도 함께 이루었다는 기억이 있다면, 그것을 지팡이 삼아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을 하기 보단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픈 시대와 문화 속에서, 이러한 합체를 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편하고 시대착오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각자 불완전한 인격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의 지체를 이룩한다는 아름다운 로망이 존재하고, 이 로망이 눈부신 이유는 그 이상향이 우리 자신보다 더욱 드높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도 함께 멋진 팀플레이를 하면서, 기쁨의 합체를 이루어가는 사랑방공동체의 지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노력해봅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 전도서 12장 7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91장 88장 95장
기도 :
성경 : 이사야 53장
제목 : 고난 받는 종의 노래

1. 내용: 하나님의 종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것이다 (What)
   <문단구분>
   52장 13~15절 높임 받을 하나님의 종
   1~5절 멸시받는 하나님의 종
   6~10절 주의 뜻을 묵묵히 따르는 종
   11~12절 하나님의 의로운 종

2. 의미: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Why)
   1) 하나님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힘의 방식이 아니라 놀라운 방식을 사용하실 것이다.
   2) 신앙에서 인간은 이해보다 오해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이해해야 한다.
   3)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생각하자.

3. 적용: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자. (How)
   1)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소식을 확실하게 믿자.
   2)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자.
   3)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고 은혜를 받아들이자.

일 상

안녕하세요. 윤산입니다. 꽃이 만개하고 화창한 계절 봄입니다. 며칠 전 감사하게도 주보 글을 부탁받아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글을 쓰는지라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을 쓸지 고민하던 중에 "근황을 쓰자"라는 생각이 들어 근황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취업을 위한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선택한 진로가 아니라 부모님의 입김이 있음에도, 마땅한 방법이 없던 저에게는 이득이라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대충 아침을 먹고 버스를 타고 도서관에 갑니다. 빈자리를 찾아 앉은 다음, 가방에서 아이패드, 책, 노트, 필기구, 계산기를 꺼낸 후에 잠깐 시간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공부가 지루해질 때쯤에는 주위를 둘러보며 주변인들을 관찰합니다. 그들의 생김새나 연령대, 일상을 몰래 훔쳐보는 묘미가 은근 있습니다. 사실 더 재밌는 것은 산책하는 것이고, 산책이 더 좋긴 합니다.

오후 3~4시쯤에는 하교하는 학생들이 몰려와 복잡해지는 시간대입니다. 한창 집중력이 저하되는 시간대이므로 이때부터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하지만 참고 인내하다 보면, 어느덧 도서관 마감 시간이 됩니다. 기쁘게 귀가하는 발걸음을 끝으로 저의 반복되는 일상이 끝이 납니다. 지루한 일상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늘·젊은이주일로 청년들이 예배 인도, 청소를 도맡아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점점 인원이 줄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남은 인원들이 화합하여 준비하는 모습이 대견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의 존재보다 물질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이 시기에 많은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2024년 한 해가 어느덧 거의 절반을 지나고 있는데, 남은 한 해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이사랑방 윤산 청년

주일공동예배

인도자 : 조이서 청년
오전11시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시 편 119 : 9 - 12	인도자
*예배의 찬송	19	다함께
*기원의 기도		인도자
*기원찬송	영광 영광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참회의 기도		
*용서의 말씀	요한복음 5 : 24	인도자
*신앙고백		다함께
고백의 찬송	205 575	다함께
공동기도		다함께
목회기도 〈대표기도〉		박예영 청년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전도서 12 : 1 - 7	석지인 청년
성가대 찬양	야곱의 축복	늘,젊은이사랑방
설 교	"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성김의 삶

의탁의 기도		설교자
응답의 찬송	574	다함께
*봉헌기도		김이레 청년
*영광찬송	438(1)	다함께
*위탁의 말씀		설교자
*강복기도		설교자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예지 박은지 / 봉헌위원 : 박예나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공동기도문

창조주 하나님
젊은이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여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네 창조주를 기억하라. 솔로몬은 말년에 쓴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내용을 후대들에게 전하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 마지막 교훈은 젊은이들에게 남기는 교훈인데, 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구절이 3번이나 반복되면서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분명하게 드러내었습니다. 또한 청년 때와 대비되는 노년의 모습을 실감 있게 전합니다.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이름 중에서 창조주라고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특별히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동요하는 시기가 청년의 식입니다.

오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은 정말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정말 늙어버리는 노인과 같은 불쌍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참 신앙의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결코 절망스럽지 않습니다. 그의 영혼은 더욱 새로워지며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서 인생의 원숙함이 더해갑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정승희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화요일 수요일에 봄여행을 다녀왔어요. 꾸러기들은 월요일 아침부터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기흥성뮤지엄에서 미니어처로 거북선, 경복궁, 숭례문, 월지와 동궁 등을 보았습니다. 에펠탑과 세계 여러나라의 랜드마크라 할 만한 건축물들의 미니어처도 보았습니다. 한켠에 전시된 미니카들이 꾸러기들의 시선을 잡아끕니다. 용문사 입구에서 1100살이 넘는다는 커다란 은행나무를 한참을 보았습니다. 꾸러기들은 용문사 연못 속 동전들, 불상에 절하는 사람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용문산 숲해설센터 앞에 걸린 도꼬마리 다트를 하다가 해설사님을 만나 다리가 다 나온 올챙이를 루빼로 자세히 보고 작은 나무판에 그려 가방에 걸었습니다. 해거름에 개구리소리 가득한 길에서 산책을 하고 스파클러로 어둠 속에 반짝이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침부터 마당에 나가 공도 차고 그네도 탑니다. 양떼목장에서 아기면양에게 먹이를 주며 보드라운 털도 만져보고 돼지, 토끼, 타조, 거위도 찬찬히 생기새와 움직임을 살며봅니다. 거기 놀이터에서 삽질을 해봅니다. 멍멍이 친구들은 제법 삽질을 잘 해서 멋쟁이 가도 잘 하겠다 싶습니다. 친환경농업박물관에도 갔는데 친절하신 해설사 선생님들의 배려로,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포기했던 다도체험까지 했습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어느 덧 신나고 기대되고 바빴던 5월이 한 주만을 남긴 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 탓에 목감기로 고생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점점 더 높아지는 낮 기온 덕에 어린이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건강한 바깥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밭에는 상추가 먹기 좋을 만큼 자라가고 뒷운동장에는 버찌나무의 열매가 어린이들의 간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마당에 있는 보리수나무가 그 역할을 이어받겠죠?

지난 한 주간 어린이들의 큰 이야깃거리는 금요일 점심 식사메뉴였습니다. 월요일이면 주방에 살짝 들어가 붙어있는 한 주간 식단표를 확인하고 요일과 메뉴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곤 하는데 '파스타와 미트볼' 이라는 특별한 메뉴는 한 주간동안 어린이들의 마음을 들뜨게 했습니다. 심지어 금요일 오전엔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었지요. ^^ 예상대로 금요일엔 요리선생님들의 사랑 듬뿍담긴 식사로 맛있는 한 상을 받았습니다. 요즘 학교 급식이 직원을 구할 수가 없어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곳도 많다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요리선생님들의 사랑을 잘 먹고 크고 있음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누군가의 수고로 받게 되는 사랑을 잘 기억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길 바라며 함께 키워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교사 : 전선희 >

멋쟁이학교

학교 주변은 어느샌가 초록빛이 시야를 뒤덮도록 무성해졌습니다. 햇빛도 따끔해져서 그런지 멋쟁이들은 그늘을 더욱 좋아하게 된 눈치입니다. 그런데 여름의 신호에도 불구하고, 많은 멋쟁이들은 매일 공차기에 열정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자전거도 타고, 새벽 달리기도 뛰고, 팔굽혀펴기 등 육체활동에 열심인 모습들이 참 멋집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열린수업의 일환으로 청와대를 단체 관람하러 외출을 했습니다. 역사가 서려있는 공간에 대해 간단히 배우고, 국가의 지도자들이 머물렀던 곳을 둘러보고 나니, 권력의 힘과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어준 것 같았습니다. 청와대를 본 이후에는 부서별로 저녁식사를 하며 여러 곳들을 누볐습니다. 청계천에 가서 고즈넉히 책을 읽기도 하고, 교보문고에 모여서 이것저것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오가는 과정에서 지하철을 탔던 것도 즐거운 경험들이었습니다.

4학년이 있던 미국에 방문하셨던 정태일 교장선생님께서 무사히 귀국하셨습니다. 좋은 소식들도 전해주시고, 멋쟁이들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맛있다는 초콜릿을 챙겨와 주셔서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안전하게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 교사 : 이어진 >

은혜, 감사

봄꽃으로 화사하던 교회 마당이 계절의 여왕 5월이 되니 초록의 푸르름으로 가득합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생활하며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올 해로 사랑방공동체가 창립 40주년이 되었습니다. 사랑방교회에 첫 발을 디뎠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년이 되었네요.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때 당시 20대, 30대였던 청년들이 이제는 중년, 노년이 되었고 사랑방 공동체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40년 세월 속에 담겨 있는 아름다웠던 추억들이 너무나도 많고 새록새록 합니다.

그 중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처음 자연예배 드렸을 때가 생각납니다. 5월 자연예배 장소는 청평 호반의 집. 마장동 버스 터미널에서 함께 모여 가기로 했는데 제가 그만 약속 장소를 착각하여 1층에서 기다리다가 (약속장소는 2층) 먼저 떠난 줄 알고 혼자 버스타고, 택시타고 청평을 찾아 갔는데 제가 제일 먼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후에 교회 식구들이 도착하셨는데, 약속 장소에서 저를 한참 기다려주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미안하고 반갑고 감사했던지요.

무림리로 오기 전 13년 동안 자연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함께 꿈을 꾸며 지냈던 시간들이 꿈같은 세월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생활공동체 그루터기 언덕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교회 마당이 보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립니다.

지난 40년 동안 사랑방공동체를 이끌어 주시고, 하늘나라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사랑방을 삶의 터전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함께 했던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이었음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루터기사랑방 김영화 권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다운 전도사
찬 송 : 183장, 452장
성 경 : 사도행전 18장 1절-4절
말 씀 : 다양한 역할에 충실하십시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전쟁 중인 지역의 평화를 위해>
세계의 전쟁 지역들이 점점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하마스)간의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그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시길 위해 기도합시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한국기독교대안학교 협의회를 위해>
점점 더 늘어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정부에서도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과 대안학교와 정부의 정책들이 협력되도록 그 일에 앞장서고 있는 한대연을 위해 기도합시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1) 출타 중인 공동체 지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2) 몸이 아픈 지체들과 회복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 생활공동체 소식 >

멋쟁이학교 학생들의 청와대 견학 차량지원을 위해 점심 이후와 저녁 늦은 시간에 공동식구 몇 분이 섬겨주셨습니다. 자신의 일 외에도 공동체 각 영역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기꺼이 도와주시는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밭은 이제 제법 자란 작물들을 수확하여 먹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양식이 넘쳐날 것을 생각하니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오늘도 공동식구들을 먹이시는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장영미 전도사 >